

# 민주시민이 되는법, 시민학교(Citizen School)에서 배운다.

현상 1. 얼마전 예능프로그램의 스타로 떠오른 한 유명인사가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독재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되었다. 이 인사는 국내 최고의과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이자 유명병원의 원장으로, 한국사회의 많은이들이 통상 칭하는 엘리트그룹에 속한다는 평을 받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독재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이 한사람 뿐일까? 많은 이들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있지만, 단지 이 인사가 미디어에 노출이 심한탓에 지탄을 한몸에 받은 것은 아닐지. 70, 80 년대의 독재정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정착이후, 어느덧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시대에 뒷떨어진 화두를 질질 부여잡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어렵지않게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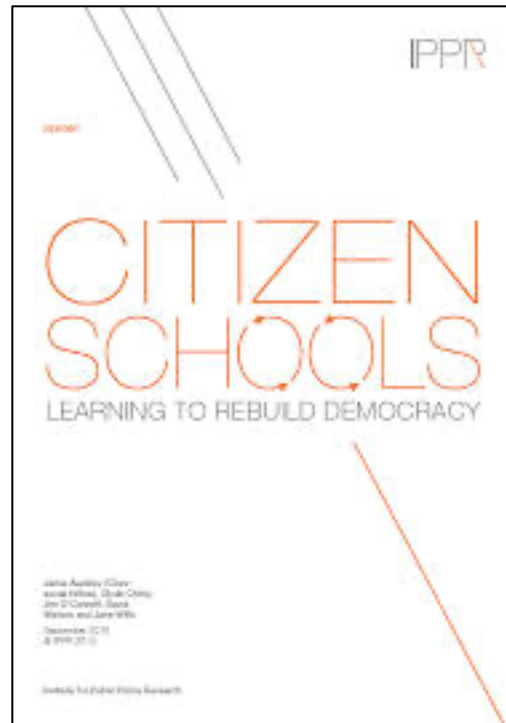
현상 2. 매번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 선거철이 오면, 과거에 비해 더더욱 저조해지는 투표율을 두고 많은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글을 생산해낸다. 대통령 직선제를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갈구하던 것이 불과 25 여년전인 것을 상기해보면, 많은 이들이 선거의 한표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의미를 믿지 못하는 작금의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민주시민이 되는 법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시민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우려는 단지 한국사회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영국에서도 민주사회에 대한 위기감이 많은 이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민주사회의 완성이 공정선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영국의 민주시민들이 믿고있는 민주사회는 국가 시스템뿐아니라 집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영국내 모든 집단에서 민주적인 원리와 절차에 의해 그 운영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구성원들의 참여이며, 구성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참여가 내가 소속한 집단을 바꿀 수 있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 싹트고 자라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의 철학과 방식이 온전하게 자리잡기 전인 청소년기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역 커뮤니티와 학교운영에 참여를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본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된 이후에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철학과 행동을 늘 생활의 일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지않을까? 현재 적지않은 영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고, 그 교육효과가 많은 진보학자 및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 2013년 9월에 발간된 영국내 진보적 싱크탱크로 알려진 IPP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시민학교 (Citizen Schools)”라 부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시민학교란 “시민 기관의 역할로서 명확하게 민주주의 문화를 창조하는 학교”이다. 시민학교는 학교내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위한 공공활동 참여에 요구되는 시민의식(citizenship)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IPPR의 연구보고서 “Citizen Schools: Learning to Rebuild Democracy”

(출처: <http://www.ippr.org/publication/55/11162/citizen-schools-learning-to-rebuild-democracy>)

2 차세계대전 이후 영국 정부가 주도해온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보면 개인의 역량강화와 경력개발에는 많은 중점을 두어왔지만, 개인이 속한 집단 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단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주도되고 있는 대부분의 초중고등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비판은 영국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져, 2002년 노동당 정부는 국가 공교육 커리큘럼의 일부로 11세~16세의 중등교육 과정에 시민의식(citizenship)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영국의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시민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왔다. 그 결과 많은 교육자들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단순히 책과 강의를 통해 민주주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교교사들이 함께 적극적인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평가를 하고있다.

## 학교속의 지역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속의 학교

학생들과 학교교사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행사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IPPR의 연구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민학교의 사례들은 모두 국공립 중/고등학교가 지역의 다양한 그룹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참여를 통해 풀어나가고, 자신이 참여로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되는 것이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이다.

## 열린사고 (Opening Minds) 프로그램



Tipton 에 위치한 RSA 아카데미와 학생들

(사진출처: <http://www.rsablogs.org.uk/2013/education/citizenship-education-policy-temporary-practice-permanent/>)

여기 RSA 아카데미 소개 뉴스 영상 삽입해도 됩니다.

<http://news.bbc.co.uk/1/hi/education/7707662.stm>

[RSA \(The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는 영국내에서 인류가 당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목하면서, 21 세기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들을 연구하는 비영리기관이다. RSA 는 영국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인 “[열린사고\(Opening Minds\)](#)”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시민의식(Citizenship), 학습 (Learning), 정보관리 (Managing Information), 사람들과의 관계맺기(Relating to People), 상황 관리(Managing Situations)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있다. 기존에 영어, 수학, 과학등 지식습득에 편중된 중고등교육과정에서 결핍되어 있었지만, 기업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이 갖추어야할 주요 역량 다섯가지를 가려내어 개발된 것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영국내 약 200 여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열린사고*에서 다섯가지 주요 역량의 하나로 설명된 시민의식은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재생과 활성화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영국 중서부 지역 톱톤(Tipton)에 위치한 [RSA 아카데미](#)는 *열린사고*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이다. 톱톤의 RSA 아카데미는 학생들의 출석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부모들의 교육열도 낮았으며, 지역에서 실패한 학교로 평가받던 학교였던 윌링워스 고등학교가 그 전신이다. RSA 의 후원으로 교명을 바꾸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시민의식” 기르기 과정의 중점은 바로 RSA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학교주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그와 함께 요구되는 실용적 스킬들을 익히게 된다.

RSA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다양한 그룹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튜터링 프로그램, 식사함께하기 프로그램, 행동변화 프로그램등과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예: 지역텃밭 가꾸기, 지역청소, 지역 운동 프로그램 운영등)에 참여한다. 지역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을 제시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교사들이 기획한 지역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학생들은 1 주중 2 회의 반일과정동안 교실에서 배웠던 다양한 지식과 철학을, 꼭 학교바깥 지역내 실제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의 영국내 여타 공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한 기회를 정식 커리큘럼외의 특별활동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RSA 아카데미에서는 이와 달리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의 주도적인 참여를 의무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교내 학부모회에서도 단순히 학교운영에 관련된 문제뿐아니라, 지역문제를 학교에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피드백들을 제안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RSA 아카데미는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자임하면서,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의 다양한 시민그룹 단체들도 학교에서 개최하는 학부모 모임에서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하는 토론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RSA 아카데미는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이러한 참여가 가능해진 것은 학교에서 지역활동을 교육커리큘럼의 주요 모듈로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커뮤니티 개발 코디네이터를 두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학교 학부모회와 학생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노력을 한 결과이다. 또한 학교내 커뮤니티

개발 코디네이터는 토론의 결과를 관련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의 시민이 목소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자임하여, 토론에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민학교 무엇이 달랐던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활동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기획하고 제공한다는 것은 그리 특별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다. 국내 공교육기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렇다면 RSA의 열린사고 프로그램과 같이 시민학교라 불리는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공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역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무엇때문에 흔하디 흔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시민학교를 진정한 민주시민을 육성해내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시민학교의 네가지 원칙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런던 해크니지역에서 커뮤니티활동에 참여중인 고등학생들

(사진출처: <http://www.citizensuk.org/2011/03/launch-of-citysafe-in-hackney-citizens-reclaiming-our-streets/>)

첫째. 시민의식교육을 학교 공교육의 필수요소로 포함한다.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 하나는 바로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인재로서의 젊은이를 준비시키는 일이다.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인재들을 고려할때, 기존에는 특정 주제(예: 대학시험에서 요구되는 주제)의 지식/정보/기능등만 익히는 것을 강조하였었다. 민주사회를 완성해가는 일이 사회기여의

중요한 것이 명백한바, 시민학교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시민의식 교육을 학교교육의 과외활동이 아닌 필수과정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시민의식과 관련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문화가 학교내에 정착되어 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공기관으로서, 시민학교자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운영과 의사결정등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고있다. 사례로 살펴본 RSA Academy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지역서비스 프로그램등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커뮤니티는 바로 학교인바, 학교내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이 실제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로 인한 변화를 경험할때 비로소 학교를 넘어선 지역사회로의 참여에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변화를 만들수 있다는 믿음으로 임할 수 있게된다.

셋째. 시민의식 교육은 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action)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참여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시민학교의 교육은 모두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책이나 강의만이 아닌 실제 커뮤니티의 문제를 함께 참여로 풀어내고, 자신이 공공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참여가 기반이되는 민주시민의식을 갖게된다. 특히 너무 어렵거나 거창한 국가/글로벌 문제보다는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접적이고 또한 공통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문제들 (예: 거리안전, 지역환경문제등)을 함께 풀어나감으로서, 자신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학교의 전체 교육수준을 높일수 있는 전략으로서 시민의식교육을 연계한다.

시민학교는 시민의식 교육을 분리된 교육과정으로 고려하지 않고, 다른 학과목 성적을 향상시킬수 있는 전략의 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리더쉽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다른 학과목 학습에도 집중력과 호기심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학교는 대학진학에 요구되는 학습성과 향상에도 동기부여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시민의식 교육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글에서 살펴본 시민학교의 놓치지 말아야할 또하나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은 풀뿌리에서 자라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RSA Academy의 경우 씽크탱크 성격의 비영리단체 RSA가 마련한 혁신교육모델을, 이에 공감하는 학교들이 채택하여 운영해본 것이다. IPPR 연구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시민학교의 사례들 모두 협동조합 컬리지, Citizens UK와 같은 비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개발한 교육모델을 학교내 운영과 교육과정 개발에 채택한 사례들이다. 이것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민주시민을 육성해내는 교육모델을 만들고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도 교육현장에서 시민사회와 학교, 학부모, 학생이 만나 함께 실현해보고,

수정해나가는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해나가고 있다. 민주주의 종주국 영국에서 주목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방법은 이렇듯, 그 기획과 개발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함을 잊지않고 있다.

김정원, 영국 스프레드아이 공동대표.

